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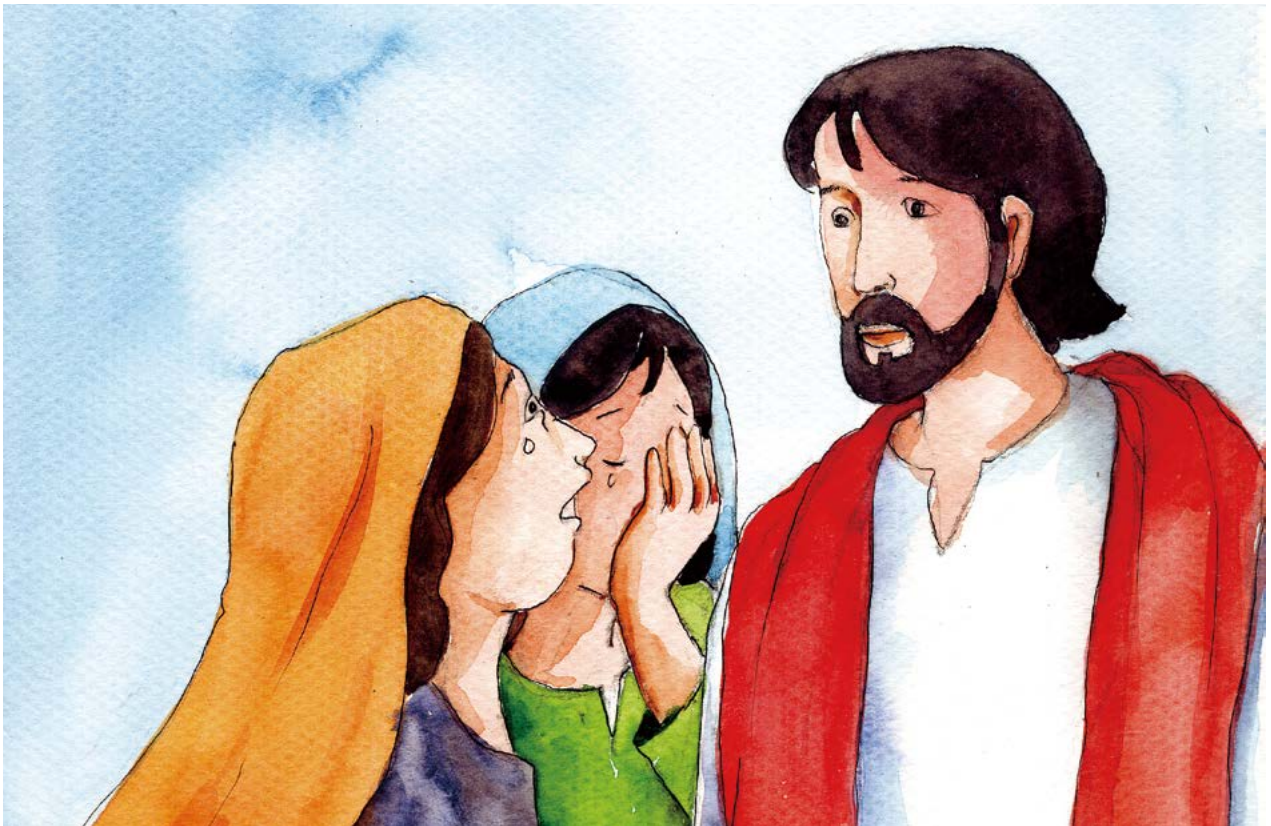
요한복음 11장 1~44절

“예수님, 큰일 났어요! 나사로가 아파서 곧 죽을 것 같아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사로가 아프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들 후에야 제자들을 데리고 나사로에게 가셨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소경의 눈도 뜨게 했다면서 사랑하는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나 보지?”

예수님께서서는 슬퍼하시며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 “나사로야 나오너라.”하고 무덤을 향해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
느냐 하신대 (요한복음 11:40)



33

그러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베로 묶인 채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을 본 많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공부

살아난 나사로

1. 다음 내용 중 맞는 것은 ○표, 틀린 것은 X표 하세요.

- ① 예수님께서서는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
- ②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사로를 살릴 것을 믿었습니다. ()
- ③ 예수님께서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라는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

2. 마리아와 마르다는 한 가족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정말 많이 슬펐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 났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되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모습을 봤다면 어떤 기분이었는지 적어 보세요.



3.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을 써 보세요.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고쳤다면
나사로는 그냥 죽게 내버려둘 수
밖에 없었나보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26)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 우리의 영혼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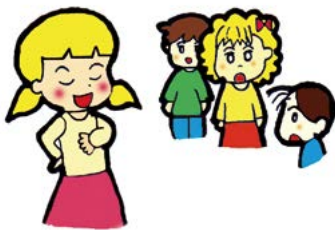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1)

? 다음 현빈이의 모습을 보고 물음에 대답해 보세요.

현빈이는 지원이를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맛있는 것도 사 주고 숙제도 도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원이가 구원받게 해 주세요.” 마침내 지원이는 전도집회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현빈이는...



생님! 제가 이번에 친구를 전도했잖아요.
선물 안 주세요?



지원이는 나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지원이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했다고.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 현빈이의 모습을 보고 현빈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써 보세요.

? 현빈이가 잊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빈 칸을 채우며 생각해 보세요.

현빈이는 자기가 지원이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
지원이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요나 2:9)



죽은 사람은 하나님만 살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예화

* 무사 통과

미국 남북전쟁 당시의 일입니다. 한 노인이 백악관 앞에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군대에서 도주해 탈영병으로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은 이들의 구명을 위해 링컨 대통령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보초병들은 노인의 백악관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소년이 노인에게 다가와서 말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따라오세요.”

소년은 곧장 백악관으로 달려갔고 노인도 소년을 따라 급하게 백악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소년과 함께 링컨 대통령을 만나 아들에 대한 사정을 하소연했고 노인의 아들은 사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을 링컨 대통령에게 이끌어 주었던 소년은 바로 링컨 대통령의 아들이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천국의 문을 무사 통과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백악관 앞에서 눈물 흘리는 노인처럼 나 혼자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 들어갈 때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곳입니다.

부모님
난

선생님
난

숨은 글자 찾기



다음 문제의 답에 해당하는 글자를 하나씩 상자에서 지우다 보면 숨겨져 있는 한 단어를 찾을 수 있어요.
숨겨진 글자를 찾아 보세요.

시	요	다	로	하
야	예	요	아	나
담	다	수	몬	와
엘	슬	니	님	윗

-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 ■ ■ (열왕기상 4:29~31)
- 최초의 사람, 선악과를 먹은 ■ ■ 과 ■ ■ (창세기 3장)
-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죠 ■ ■ (요나 1, 2장)
- 골리앗을 물리친 ■ ■ (사무엘상 17장)
-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뜻을 세운 ■ ■ ■ (다니엘 1:8)
-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왕,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왕은 없었죠. ■ ■ ■ (열왕기하 23:25)

부모님
난

선생님
난